

마음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대니얼 웨그너·커트 그레이 지음

최호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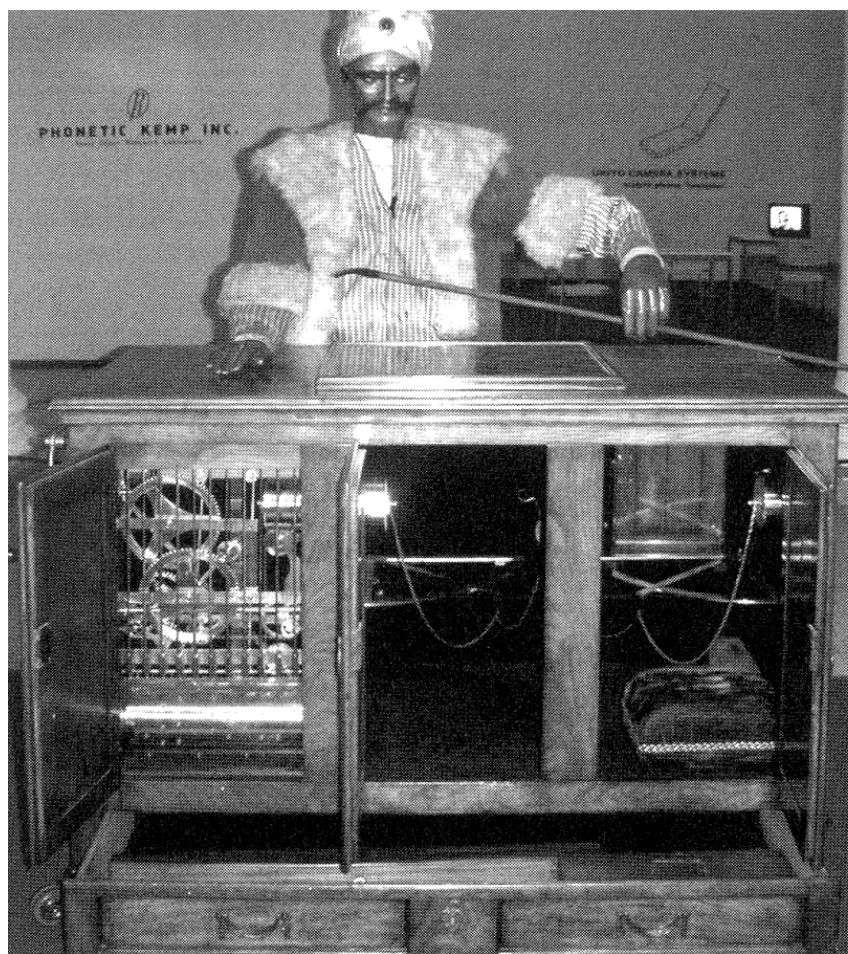


30년 전 한 사회 심리학자가 간단한 인지 실험을 했다.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피실험자들에게 5분 동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만약 흰곰을 떠올리면 종을 울리게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피실험자 누구도 흰곰에 대한 생각에서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특정한 생각을 억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에 묶이는 양상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를 ‘흰곰 효과’라고 한다.

사회는 점차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마음 나누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에 비해 마음 숨기기는 능숙해져 좀처럼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에게 마음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처럼 느껴져 마음의 존재 여부를 아예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현대의 최첨단 기기를 이용한 뇌 촬영 사진도 타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 주지 못한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기계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사진은 체스를 두는 기계, 터크. <추수밭 제공>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 사회심리학자 대니얼 웨그너는 ‘마음’에 관한 집필 작업을 구상하던 중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제자인 커트 그레이에게 책의 완결을 부탁했다. 2013년 웨그너가 숨질 때까지 함께 ‘마음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으로 완결되었다.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마음의 비밀’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책은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 지각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타인의 마음이 지각의 문제인만큼 이런 지각을 실행하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저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문제는 곧 ‘지각’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물, 기계, 혼수상태의 환자, 신 같은 평범하지 않은 존재에 대한 마음 지각의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증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기계’의 마음을 살피는 부분이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처럼 뛰어난 지능이나 학습능력을 가진 것에 서부터 최근에는 감정까지 느끼는 듯한 인간형 기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어떤 사람은 아마존 인공지능 비서 에코와 대화를 즐기기도 한다. 이것은 기계에 마음을 부여하는 행위와 같다.

저자들은 마음의 여부가 지각에 달려 있다는 것은 말 없는 자에게 중요하다고 본다. 식물인간이거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운동능력이 없어 자기 몸에서 갇힌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구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있지만, 사람들은 식물인간 환자를 죽은 자 이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특히 죽은 자의 마음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타인의 마음이 지각의 문제인만큼 이런 지각을 실행하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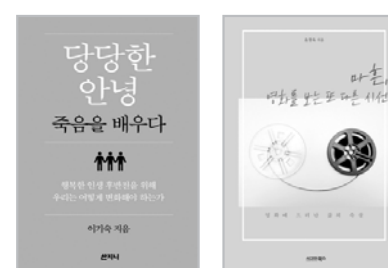
<추수밭 1만8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당당한 안녕 죽음을 배우다=삶의 가장 마지막 과제인 ‘잘 죽는 것’에 대한 에세이 ‘당당한 안녕’은 총 4부로 구성돼 죽음에 대한 경험과 준비, 노년의 삶과 최소의 치료, 보내는 이들의 사려와 애도 작업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 이기숙은 한국다임터스 대표를 맡으며 죽음 관련 강의와 연구 그리고 엔딩노트 사업,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삶과 죽음을 토대로 좋은 죽음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친근한 어조로 설명한다.

▲마흔,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시선=영화 속에는 무수한 삶들이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기도 하고, 힘든 삶에 위안을 얻기도 한다. 이 책은 영화가 가진 의미를 어렵지 않게, 다소 깊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써내려간 에세이다. 작가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다섯 가지 주제로 엮고 그와 관련된 영화에 작가 자신의 생각을 입혀 읽기 쉽게 그려내고 있다.

▲유배공화국, 해남 유포피아=중국 진(晉)나라 도연명이 “어찌 쌀 다섯 말 녹봉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있겠느냐”며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고향의 삶을 읊은 ‘귀거래사’에 비견되는 시인들이 눈에 띈다. 혁명을 노래하고 있는 반란의 땅골 해남



에서 일구는 순정한 혁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다. 무엇보다 순정성이 돋보이며 전원에서 자연과 그런 자연과 꼭 닮은 민초들과 어울리는 삶에서 우리나라 시집이다. 때문에 당위적, 작위적이지 않고 순리, 첫 마음에 따르는 순정이 녹아든 혁명시집이다.

▲헌법 쉽게 읽기=이 책은 평범한 시민을 위한 헌법 기본권 안내서다. 2016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빼앗겼던 권리를 찾으며 나아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 제1장과 제2장의 각 조항을 일상의 이슈를 들어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인물과사상사·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열려라, 한양=열려라, 한양’은 한양을 통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지식 그림책이다. 조선 왕조는 500년 넘게 이어졌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다. 과연 조선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을까? 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양이 안성맞춤이다. 조선 건국부터 시작해 500년간의 수많은 사건들 중 꼭 전하고 싶은 역사와 풍경을 한 권에 담았다.

▲너, 무섭니? =작은 생쥐 미나는 먹이를 구하려 나간 엄마를 하루 종일 기다린다. 갑자기 엄마가 할레할레 뛰어들어 무섭다며 몸을 떨었다. 미나는 무서움이 뭔지 알고 싶었지만, 엄마는 무서움은 보여 줄 수가 없었다. 결국, 미나는 혼자 ‘무서움’을 찾아 나섰다. 이 책은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감정 ‘무서움’을 입체적으로 들려주는 유용한 감정 그림책이다. 무서움의 양면성을 느끼면서 안정감과 친밀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려준다.



▲피노키오 짝꿍 최정순=엄마가 태교로 읽은 피노키오 때문일까? 피노키오 태몽을 꾸고 태어난 주인공 노기호는 코가 유난히 커 별명이 피노키오이다. 피노키오는 4학년이 되도록 늘 짝이 혼자 앉았다. 하지만, 곧 여자 짝꿍이 나타나는데, 그 짝이 80세가 넘는 최정순 옥쟁이 할머니다. 할머니에게는 남모르는 가슴 아픈 비밀이 있다. 기호는 짝꿍 할머니와 서막한 관계로 출발하지만 날이 갈수록 짝꿍을 이해하게 되는데... 기호와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못난 아저씨’ 될 뻔한 인생을 바꾼 책 읽기

서민 독서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

서민 지음



서-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는 대학 때까지 “책 좀 읽어라”는 소리를 들었고 서른이 되면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그가 전하는 ‘독서의 힘’에 대한 이야기다.

책은 무엇보다 독서법, 추천도서를 언급하는 대신 ‘웃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의 바람처럼 유머를 담아 편하게 풀어낸 게 특징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부터 시작해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교수는 “독서가 나를 구원했다”고 말한다. ‘나 잘난 맛에 살면서 정치적으로 보수를 지지하고 경제적으로는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아저씨’가 됐을지도 모를 자신을 구해낸 게 바로 ‘책’이라는 말이다. ‘기생충 전도사’ 서민이 최근에는 ‘독서 전도사’로 변신했다. 신작 ‘서민 독

내를 만난 사연 등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는 독서 이야기는 흡입력이 있다. 1부 ‘책 안 읽는 사회’는 요즘처럼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을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일들을 들려주며 도서정가제, 한강과 부커상, 베스트셀러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힌다. 2부는 ‘책 읽기의 힘’에 대한 이야기한다. 책 읽기는 상상력을 키워주고, 인터넷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해준다. 또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꿈을 찾게 해주고, 말도 잘하게 해주

는 게 바로 책 읽기의 힘이다.

3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는 고전을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등에 대해 들려주며 책에서 얻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팁도 실었다.

언론 등에 시사 칼럼 등도 꾸준히 쓰고 있는 저자는 단순히 독서에 대해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풍성한 사려를 들려준다. 그가 책에서 언급한 책들은 여성학자 장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 정혜운의 ‘스페인 야간비행’,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등이다.

<울유문화사·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2>상무지구 상가 매매</h2> <p>시청 1분. 금용가대로변 현대아파트 후문 앞</p> <p>8층 중 4층 (45평) 내부개끗 / 주차 가능</p> <p>보 2천 월 100만 → 매가 1억9천 (웅7천)</p> <p>직매 010-6670-9800</p>	<h2>수기동 상가 매매</h2> <p>천변로 전망최고</p> <p>20층 중 6층</p> <p>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p> <p>보 1천 월 60만</p> <p>매가 9천8백 (웅5천)</p> <p>직매 010-6670-9800</p>	<h2>경매 (주)대신경매</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구 총장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금남로 4가역 1분 (대형 주차장있음)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2)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3)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4) 동구 서석동 (주택) 토지 153평 건물 50평 서석초, 동구청 1분 (조선대 3분) 감정가 4억9천 → 최저가 4억9천 5) 나주 경현동 (4층 상가 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위치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9억9천 6) 전주시 완산구 전동 (3층 상가건물) 토지 268평 건물 528평 한옥마을 인근 (월세 1천만 이상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40억 <p>010-7384-7800</p>	<h2>경매교육</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p>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p>010-6670-9800</p>
--	---	--	---